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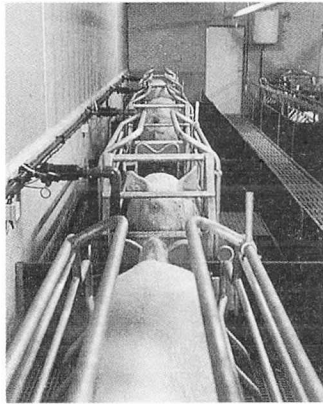
## 분만책의 직렬식 배치

유진현 역  
(본회 김천지부장)

분만책을 통로와 평행하게 배치함으로써 모돈이나 자돈의 일상관리와 이동 등의 작업이 용이해진다. 유럽에서 최근 분만책의 배치를 바꾼 양돈장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모돈의 방향은 종전과 같이 통로에 직각이 아닌 평행이 된다<그림 1>.

현재 이러한 설계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종종 보인다. 어느 양돈장에서는 모든 모돈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수용되어 있다. 한편, 이웃하고 있는 모돈을 180° 방향을 바꾸어 머리와 머리를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한 양돈장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분만책을 일직선으로 배열한다는 생각은 일찌되고 있고, 분만책은 항상 통로에 평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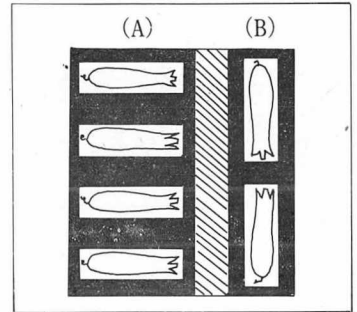
직렬식 배치의 최대 이점은 분만돈사에서의 일상관리가 쉽다는 점이다. 먼저 모돈의 앞에



<사진 1>분만책을 직선적으로 배치, 돼지에게로의 접근, 컨트롤이 간단하다. 이 경우 모돈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며, 급이는 리퀴드 피딩을 파이프 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도 뒤에서도 간단히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의 분만책(통로에 직각 또는 사열식) 배치에서는 통로로부터 모돈이 떨어져 있는 경우, 분만개조는 용이했지만 급이기로의 접근이 불편했다. 또한 반대로 급이기가 통로를 향하고 있는 경우 분만개조가 불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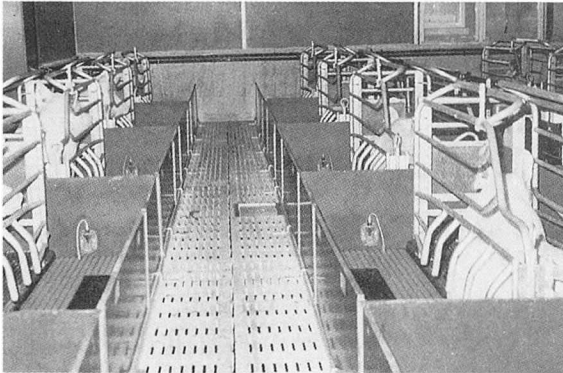
이러한 곤란은 분만돈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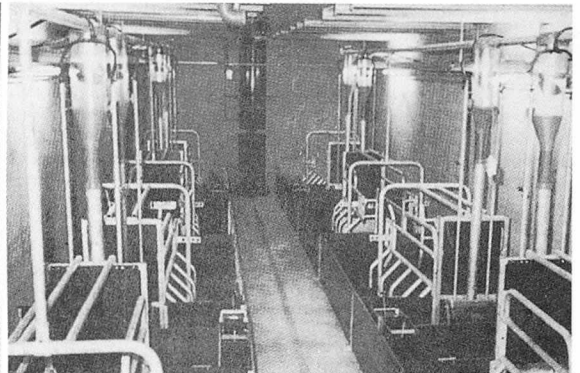
<그림 1>종래의 분만책 배치(A)와 유럽스타일(B), 후자는 통로와 평행으로 분만책을 설치.

한쪽이 벽으로 되어있을 때 특히 생긴다. 따라서 관리자는 급이나 분만상태의 점검, 자돈의 관리 등을 위해 분만돈방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직렬식 배치에서는 통로로부터 자돈의 휴식장소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한 양돈장에서는 분만책을 돈방의 중심으로 부터 겹치지 않도록 비계 놓음으로써 자돈용 장소(급수기, 보온매트)를 넓히고 통로에 서로 인접하여 설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설계에서는 자돈의 침상



〈사진 2〉이 직렬식 분만방은 넓은 수유구역과 침상을 통로로 이용하여 확보하고 있다.



〈사진 3〉동부프랑스·터란드뮤즈농장은 대두식 직렬식 배치를 채용하여 자돈의 침상을 모든 앞쪽에 설치하고 있다. 모돈은 섬모양의 다른 곳보다 3cm 높은 바닥에 놓도록 되어 있어 자돈의 압사방지, 바닥쪽의 유두의 유효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돈의 전방 38cm, 후방 58cm는 텐더 후트의 스노코로 되어 있어, 분이 용이하게 낙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모돈의 전방에 만들어져 있어, 이것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접근이 쉬워진다.

모돈의 전방에 자돈의 침상을 설치하고 모돈을 직렬로 배치하는 방법은 어느 프랑스 종돈회사의 고안이었다. 이 회사의 설치담당 M 재스퍼 씨에 의하면 모돈의 전방에 침상을 두는 최대 이점은 슬라이드식 판자에서 자돈을 침상에 가두게 되면 수의적 관리 등이 간단하다는 점이다.

또한 침상을 전방에 배치하면 돈방 폭을 줄일 수 있다. 이 농장의 분만돈방 폭은 불과 150cm였다. 따라서 모돈, 자돈이 수유하고 있는 장소와 통로가 상당히 접근하게 된다.

실제로 자돈이나 모돈이 통로와 가까운 장소에 있으면 모돈의 출입, 이동이 간편해진다. 분만책은 전방이 사조에 붙어

있는 판넬에 고정되어 있고 뒤쪽은 지주에 고정되어 있는데, 앞쪽이나 뒤쪽 모두 조절, 해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모돈을 엉덩이쪽부터 쫓아낼 필요가 없고 이유시에는 모돈을 측면에서 견게 하여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분만돈방으로의 사료운반은 컨베이어를 사용하고 각 모돈의 사조로는 호퍼를 이용해 낙하시키고 있어 자동급이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통로로부터 사조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급이는 수작업으로 행해도 힘들지 않다. 종래와 같이 통로에 직각 또는 비스듬하게 배치된 분만책에서는 통로로부터 사조가 멀어 급이에 힘이 많이 들었다.

이 분만돈방의 또 한가지 특징은 모돈이 눕는 부분이 “섬” 모양으로 다른 부분보다 높다

는 점과 앞쪽과 뒤쪽을 스노코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분만책과 앞쪽의 판넬 사이에 20cm 정도 공간을 두어 자돈이 모돈의 머리 앞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돈이 압사할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유시에는 돈방 어디에 있더라도 바로 유방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 분만책의 이점은 분만책의 측면을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만돈방을 이유용 자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도 또한 자돈으로의 접근은 용이해진다. **월간**